

위험도로 개선 위한 국비 확보 최선 복지·안전망 체계 강화한다

황인홍 무주군수, 기재부 방문... 안성~적상 4차로 확장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 등 건의

황인홍 무주군수(사진)가 26일 기획재정부 국도 교통예산과 관계 공무원들을 만나 무주 안성~적상 4차로 확장(국도 19호) 사업을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2026~2030) 계획에 반영 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덕유산 IC병목지점 회전교차로(사업비 국비 20억 원) 사업과 라제통문 병목지점 회전교차로 사업(사업비 국비 7억 원)에 필요한 국비 지원을 요청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주 안성~적상 4차로 확장 사업(추정 사업비 401억 원 / L=4.0km, B=20.0m)은 덕유산관광단지와 무주덕유산리조트를 연결하는 국도 19호선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안전성까지 더불어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안성면 금평리에서 적상면 사산리까지의 구간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안성 우회도로(5.93km)와 적상~무주IC(7.52km) 구간은 지난 2010년 4차로로 확장됐으나 안성~적상 4km 구간은 아직까지도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2차로여서 도로확장이 시급한 상태다.

덕유산 IC병목지점 회전교차로 사업은 진입차량의 속도 감소를 유도하고

병목구간 사고위험 감소와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국비 20억 원 반영을 요청했다. 회전교차로와 가감속 차로 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라제통문 병목지점 회전교차로 사업은 병목구간의 사고 위험 감소와 교통흐름의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교차로 확대와 가감속 차로 3개소, 종단경사 완화 1개소 설치를 위해 무주군은 국비 7억 원 반영을 건의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덕유산 IC병목지점과 라제통문 병목지점 회전교차로 사업은 모두 국도 위험도로와 병목지점 개선 7단계 기본계획(2023~2027)에 반영이 된 만큼 조속히 추진이 돼야 하는 사업"이라며 "무주군은 지역발전의 동력, 군민행복, 무엇보다 모두의 안전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사업 추진

대출금 이자 납입 부담 완화 위해 무주군이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투입해 관내 소상공인 대상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대출금 이자 납입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무주군 소상공인 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3천만 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5% 이내를 최대 5년간 지원하는 방식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해당 공고일(2023. 7. 17.) 이전 무주군에 주소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경영안정 목적으로 대출(2023. 1. 1. 이후 실행)을 받았을 때만

지원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희망자는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지참해 무주군청 산업경제과(지역경제팀)로 직접 방문·신청하면 되며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될 예정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코로나19 여파와 경기침체 등으로 소상공인 여러분의 고통이 크신 줄 너무 잘 안다"며 "무주군에서는 소상공인 안정 기금을 토대로 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추진해 힘을 보탬"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 여러분이 힘을 내야 무주경제가 살아나는 만큼 앞으로도 경영환경과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

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무주군은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소상공인 안정 기금 30억 원을 조성했으며 기금 조성 재원에 관한 사항과 기금용도, 관리·운용사항 등이 담긴 관련 조례(무주군 소상공인 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소상공인 대상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와 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무주군에서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소상공인 노량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지원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클로렐라 활용 결구상추 연중재배 실증 나서

새로운 유기농법과 새 소득 작목 발굴에 농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있는 가운데 진안군이 친환경 클로렐라를 활용한 결구상추 연중 실증재배에 나선다.

군은 이번 실증재배는 최근 소비자들이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생산자들은 고소득이면서 수확 작업 시 노동력이 절감되는 작목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상황에서 있을 한 장작 수확해야 해서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는 기존 잎상추 대신 포기로 수확이 가능해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 결구 상추를 실증하기 위해 추진된다.



진안군은 실증재배 품목으로 유럽형 결구상추(버터비어 품종, 미니로메인)를 선정하고, 농업기술센터와 딸기 휴작기 농가에 적용해 여름철 소득화 작목의 가능성을 검토 할 계획이다.

특히 여름철 고온다습한 시기에 재배한 결구상추는 조식이 연약하고 부패하기 쉬운데 농촌진흥청 유기농업과에서 개발한 친환경 클로렐라를 관주 및 엽면살포 시 무름병이 경감되고 저장성이 향상되는 것뿐만 아니라 생육촉진 및 수량증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가들이 재배하는 데에도 수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경식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친환경 미생물제인 클로렐라를 농업 현장에 적용해 진안군에 적합한 결구상추를 육성하고, 상품성 향상 및 품질 차별화를 통해 농가의 소득 증가는 물론 고품질 친환경 먹거리 생산에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모델 지원사업' 선정

장수군이 행안부에서 공모한 '2023년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사업'은 읍·면·동·읍 중심이 되어 정보통신기술(ICT, AI 등)과 지역공동체를 활용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맞춤형 복지·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관내 복지·안전 취약세대를 지원하고 민·관 합동 발굴 및 자원연계를 위해 '안전취약 오지마을 안전복지마차 운행으로 똑! 똑! 안전복지 울타리 구축' 사업을 기획해 운영하고

있다.

1단계로 장수군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하며 복지 상담 및 주거취약 현장 확인, 재해위험 마을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2단계로 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장 등 오지마을별 담당 인적안정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3단계로 지원 대상자 및 인적안정망 관계자들 교육을 실시하고, 4단계로 안전취약 오지마을 안전복지마차를 운영해 여름철 자연재난 취약 지역 예방, 화재 취약계층 전기·가스 안전 점검 및 소모성 안전용품 지원, 겨울철 폭설·고립예상 지역 등 취약지역 예방 및 설해대책용 장비지원을 실시하는 방침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은 26일 용담 솟을커뮤니티센터에서 '용담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준공식을 가졌다.

용담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준공

진안군은 26일 용담 솟을커뮤니티센터에서 '용담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준공식을 가졌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읍·면 소재지에 교육·복지·문화·경제 서비스 공급 가능 확충과 배후 마을로의 서비스 전달 활성화를 통해 중심지와 배후 마을 주민의 삶의 질을 함께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용담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2018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60억 원(국비 42억 원, 지방비 18억 원)을 투입해 △기초생활기반확충으로 용담솟을커뮤니티센터, 문화누리움기마당, 교통환경 개선 △지역경관개선으로 연계 보행로 조성, 음식거리 조성, 수변산책로 정비 △지역역량강화로 홍보마케팅, 컨설팅,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주요 시설인 용담솟을커뮤니티센터는 연면적 998.4㎡, 지상 2층 규모로 지상 1층에 공유 부엌, 헬스장, 다용도실이 위치하고, 2층에는 작은 도서관, 동아리실 등 다양한 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이외에는 주민들이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며 할 수 있는 겨울연못과 공유 카페를 별도의 공간으로 마련했다.

전춘성 군수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추진위원회와 용담면민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용담솟을커뮤니티센터가 용담면의 문화, 복지향상과 공동체 활성화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제1회 장수 쿨밸리 페스티벌 개최

장수군은 7월 28일부터 8월 6일까지 장수군 번암면 방화동자연휴양림에서 제1회 쿨밸리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쿨밸리 페스티벌은 장수군 번암면 방화동 계곡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시원한 물놀이와 함께 문화·예술·공연을 즐길 수 있는 축제다.

이번 제1회 장수 쿨밸리 페스티벌에서는 △송어잡기 △계곡 트래킹 △캐리커기(캐리커처) 체험 △쿨밸리 영화관(시네마)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며, 장수 한우, 토마토 등 장수군의 고품질 농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예정이다.

또한 행사 첫날인 28일에는 오후 7시부터 개막식과 함께 동물원, 이보람, 해바라기, 양지밴드, 투탑 등 축하공연이 진행돼 한여름밤의 감성을 자극할 계획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마을만들기 소규모 동아리 육성 참가자 모집

진안군은 마을단위 동아리 활동이나 청년회, 부녀회 등 작은 규모의 공동체 조직 육성을 위한 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

진안군 마을만들기 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마을공동체 조직 육성 및 지원사업'은 마을공동체 조직의 육성과 마을만들기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마을단위 소규모 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다.

사업추진 분야는 △문화교실 △풍물교실 △노래교실 △도자기교실 △먹거리교실(쿠기, 빵, 음식 등) △교육 및 학습동아리 등으로 다양 분야로 신청 가능하다.

군민 5명 이상이 참여하면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하며, 8월 4일까지 진안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마을공동체 조직 육성 및 지원사업은 심사를 거쳐 총 5개 팀을 선정하고 선정된 팀에게는 각각 250만원 내외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사업에 선정된 동아리는 사업 진행과 관련된 회계 및 정산 등의 교육을 받고 8월 10일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